순천시, 세계 최고 마그네슘 소재·부품산업 이끈다

상용화지원센터 155억원 확보…2024년까지 사업 추진
국회서 포럼…해외기관 등과 협력 체계 구축 '활력 찾기'

지난 2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신정훈·소병철·이원욱·김경만 의원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그네슘 소재·부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포럼'이 열렸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가 세계 최고의 마그네슘 소재·부품산업을 이끌기 위한 투자에 힘을 쏟고 있다.

24일 순천시에 따르면 전날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신정훈·소병철·이원욱·김경만 국회의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관련 기관·단체·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그네슘 소재·부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은 국회 산자위 이학영 위원장과 송갑석 간사, 신정훈 의원, 순천을 지역구로 둔 소병철·서동용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또 소재·부품 산업을 이끌어가는 대한금속재료학회, 한국재료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 산업부, 전남도, 순천시가 공동 주관했다.

마그네슘 소재·부품산업은 자동차용 마그네슘 판재 공장을 중심으로 순천 해룡산단에 국가 예산 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대통령이 공약했다.

하지만 기술 성숙도가 낮고 수요처가 적어 상용화가 되지 않아 제자리걸음에 머물렀다. 급기야 포스코가 마그네슘 판재사업 매각을 추진하면서 마그네슘 소재·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부적격 결정으로 좌초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순천시는 마그네슘 소재·부품산업의 잠재 성장력을 높게 판단했다. 한국재료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 등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마그네슘 상용화지원센터 구축 사업비 155억원을 확보, 올해부터 2024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또 국내 마그네슘 소재·부품 기업 및 해외 기관·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활력찾기에 나섰다.

이같은 노력 끝에 투자회사 파인트리파트너스가 포스코의 마그네슘 판재공장을 인수하면서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다.

포스코가 원천기술 R&D(연구개발) 투자에 집중하면서 세계 일류 기술을 확보한 토대 위에, ㈜파인트리포스마그네슘(이하'PPM')이 새로운 수요처 발굴에 나선 것이다.

과거 포르쉐 자동차 상판에 마그네슘 판재 적용을 성공시킨 뒤 이의 확대적용을 위한 정부과제를 독일 폭스바겐사와 공동 수행 중이다. 미국 GM, 포드, Fiat-Chrysler의 공동연구 컨소시엄인 USAMP(United States Automotive Materials Partnership)의 자동차 경량화 프로젝트에서도 PPM의 마그네슘 판재가 실증용 소재로 공식 채택되는 등 마그네슘 산업의 호기가 시작된 것으로 분석된다.

상용화 지원사업 시행주체인 전남테크노파크는 "국내 마그네슘 소재·부품 기업 70개 중에서 50개사가 참여 의사를 보였고, 이 중 12개사는 올해부터 마그네슘 상용화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재료연구원은 상용화 지원을 약속했다. 일본 수출 규제로 소재·부품 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 20일 한국기계부설연구소에서 독립연구원으로 승격한 한국재료연구원은 마그네슘 합금 개발 등 국내 마그네슘 소재의 선두를 이끌고 있다. 이번 글로벌 마그네슘 연구센터 구축을 주도하면서 국내 기업 기술지원은 물론 해외 기관과 연계한 상용화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순천을 중심으로 마그네슘 소재·부품 산업이 활성화된다면 세계 최고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포럼을 통해 대한금속재료학회 등 국내 관련 기관과 기업들을 중심으로 마그네슘 소재·부품 산업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진단할 수 있었다"면서 "국내 기업 애로기술 지원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글로벌 수요처를 발굴한 뒤 순천 해룡산단을 중심으로 마그네슘 소재·부품 생태계를 완성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마그네슘 소재·부품 허브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 100세 할머니들 '잡지 모델'

보그코리아 '곱디 고운 우리 할머니' 담아…장수 고장 '구곡순담' 이미지 제고

"워매, 이 늙은이를 찍어서 뭐 한당가, 할머니들도 꽃은 좋아한당께."

곡성에 거주하는 100세 전후 할머니들이 보그(VOGUE) 코리아 9월호의 화보 모델로 선정됐다.

23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 7월 보그 코리아는 농촌에 사는 100세 전후 8명의 할머니 모습을 촬영, 9월호에 화보로 실었다.

보그코리아는 '꽃처럼 곱디 고운 우리 할머니를 소개합니다'라는 주제를 정하고, 할머니들의 얼굴에서 '희망'을 발견하자는 취지로 기획을 준비했다. 꽃을 들고 한복을 차려입은 8명의 할머니들 모습이 잡지에 화사하게 담겼다.

화보 모델은 '구곡순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의 요청에서 시작됐다.

전국 10대 장수군 중 지리산권에 속하는 구례·곡성·순창·담양군 4곳 지자체가 2003년 결성한 공동협의체다.

장수고장으로서 지역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협업을 진행하던 중 100세 전후 할머니들을 잡지 모델로 추천해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다.

곡성 장수복지팀 한 관계자는 할머니들 자택을 직접 방문해 촬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겸면에 거주하는 하남순(93) 할머니는 당초 "워매, 이 늙은 사람을 찍어서 뭐 한당가"라고 부끄러워했지만, 나중에 사진 액자로 만들어 가져다줬더니 웃으면서 행복한 모습을 지었다고 전했다.

곡성군 석곡면 하남순 할머니(왼쪽)와 겸면 신현효 할머니.

올해 100세를 맞은 순창군 인계면 양분녀 할머니는 딸과 함께 화보촬영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할머니들께서 즐거워하셨다는 것 자체로도 좋은데, 사진을 본 사람들에게 깊은 여운까지 줄 수 있어 기분 좋은 작업이었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고흥군정 BEST 10' 군민이 직접 선정

고흥군은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고흥군정 베스트 10'을 군민의 손으로 직접 선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고흥군정 베스트 10'은 민선 7기 전반기 추진한 우수 시책이나 사업 중에서 10건을 선정하며, 고흥을 빛낸 대표적인 성과를 군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흥군은 지난 10월 각 부서에서 추천한 55건을 발전 기여도, 군민 수혜도, 지속 가능도 등 내부평가를 거쳐 19개 사업을 후보로 압축했다.

이번 내부평가에서 '베스트 10' 후보에 오른 주요 사업은 ▲고흥군 역대 최대 국비 확보 ▲1개 면(面)규모의 귀농·귀촌 인구 유치 등이 있다.

선정 투표는 다음달 5일까지 고흥군민이면 누구나 온·오프라인 참여가 가능하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보성서 민족음악가 채동선 탄생 120주년 음악회

28일, 금노상 교수 지휘 맡아

보성에서 태어난 민족 음악가 채동선 탄생 12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대한민국 채동선 민족음악제'가 오는 28일 채동선음악당(보성군 벌교읍 채동선로)에서 열린다.

민족음악가 채동선을 기리는 이번 음악제는 채동선 실내악단이 주관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전남도, 보성군 등이 후원한다.

음악제는 그의 음악들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조명하는 시간으로 진행되며, 특히 금노상 교수가 2018년 벌교 백년의 소리 태백산맥환상곡을 지휘 후 두 번째로 지휘봉을 잡아 눈길을 끈다.

레퍼토리는 채동선의 가곡 "압천"에 의한 카프리치오 바이올린 협연곡', '파랑새의 마지막 말', '부용산 가는 길', '태백산맥환상곡' 등이다 . 무대에는 김범기 경상대 교수, 정승재 상명대 교수, 정현수 전남대 교수 등이 오르며, 바이올린 김가현, 피리 김세경, 장구 박상덕 등이 협연자로 함께한다.

예술감독 김정호 단장은 "채동선 실내악단을 창단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8년 동안 단체를 이끌어 왔고, 벌써 7년째 채동선 영재 오케스트라를 통해 지역 학생들에게 음악 교육을 해왔다. 채동선 영재 오케스트라 출신인 바이올리니스트 김가현이 채동선의 압천을 연주하는 것은 참 뜻깊은 순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무료관람. 문의 010-3608-1659.

지휘자 금노상

협연자 김가현

/전은재 기자 ej6621@

"돌산 난개발" 지적…여수시, 경관 불법개발 집중단속

여수시는 경관이 우수한 해안과 도로변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불법 개발행위를 막기 위해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 토지형질변경과 농지·산림 불법훼손을 사전에 예방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여수지역 시민단체는 돌산읍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데도 행정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수시는 지난 20일부터 2주 동안 6개반 12명을 투입해 경관이 우수한 해안과 주요 도로변을 읍면동 구역별로 나눠 점검하고 있다.

이미 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곳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점검과 사전안내를 병행하고,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공사 중지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와 고발을 통해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